

평창패럴림픽 휠체어컬링대표팀에 SUV ‘올 뉴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스포츠’ 지원

재규어랜드로버의 ‘아름다운 동행’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3월9일~18일)에 출전하는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에 차량을 지원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 정신은 모험과 도전을 기본으로 하는 재규어 랜드로버의 브랜드 철학이자 슬로건 ‘Above and Beyond’와 맞닿아 있다. 랜드로버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요트 대회 ‘아메리카 컵’에 참가하는 벤 아이슬리크 레이싱 팀과 2019 럭비월드컵 등을 후원하며 선수들의 노력과 불굴의 투지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왔다.

무거운 장비·휠체어 신고 이동할 때 최적 선수들 “땀 흘린 만큼 값진 결과로 보답”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 스킵 서순석(가운데) 선수와 리드 방민자(오른쪽) 선수의 훈련 모습. 사진제공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연습장 없어 언 수영장서 연습한 노력한 결실, 은메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역시 이러한 브랜드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의 도전을 응원하며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돕기 위해 훈련 지원에 나섰다.

무관심 속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휠체어컬링은 2010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에 첫 출전해 은메달을 땀다. 휠체어컬링은 당시 아시아권에서 너무나 생소한 스포츠였다. 훈련장이 없어 수영장을 열려 연습하는 등 훈련 인프라는 너무 열악했다. 하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값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컬링 경기장이 생기면서 훈련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에 대한 시설과 지원,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선수 이동 편의성 위해 지난해부터 SUV 지원

훈련 장비를 비롯해 휠체어까지 신고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하는 휠체어컬링 선수단에게 최적의 이동 편의성은 필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선수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랜드로버의 ‘올 뉴 디스커버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훈련 및 패럴림픽 대회 기간동안 지원한다. 올 뉴 디스커버리는 가장 다재다능한 SUV로 불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프리미엄 컴팩트 SUV로써 전지형 주행 능력과 동급 최강의 내부 공간을 갖춘 랜드로버 대표 모델이다.

올 뉴 디스커버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미 지난해 강원도 강릉과 경기도 이천에서 실

시한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 훈련과 12월에 열린 전국 휠체어컬링 경기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 지원된 바 있다.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 스킵(SKIP, 전략을 세우고 팀을 이끄는 주장) 서순석(47) 씨는 “평창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팀의 목표이자 열정이자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단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팀은 모든 것을 쏟아 넣어, 그동안 흘린 땀방울만큼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드(Lead, 가장 처음으로 스톤을 던지는 선수) 방민자(56) 씨는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지지가 우리 팀이 시상대 오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응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가상현실서 ‘태권V’를 조종하세요”

롯데월드 순수 국내 기술로 VR 게임 개발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한 ‘로봇트 태권 V’ VR게임이 나온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7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 ‘로봇트 태권V’ 모티브로 하는 VR게임을 26일부터 선보인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옆 ‘VR SPACE’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봇트 태권V V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ICT 플래그십:VR 테마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한 국산 게임 콘텐츠다.

체험자가 로봇트 태권V 조종사가 되어 지구를 침략한 미지의 존재들을 무찌르는 스토리로 컨트롤러를 조작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워킹(Walking) VR 방식이다. 3차원 공간 사운드와 촉각 조제, 팔토시 등을 도입해 게임 몰입감을 높였다. 오디오가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입체적으로 재생되고, 편치에 따라 반응하는 센서들로 타격감을 느낀다. 또한 시나리오에 맞춘 햅틱 진동을 사용해 게임의 리얼리티를 높였다.

‘로봇트 태권V’ VR은 온전히 국산 기술력만으로 개발한 게임 콘텐츠라는 점에서 가치가 남다르다. 영상 퀄리티를 보장하는 ‘위지웍 스튜디오’, 팔토시와 조제에서 실감나는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비햅틱스’ 등을 국내 제작사와 함께 개발했다.

지난해 10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17)에서 애니메이션과 가상현실의 융합으로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11월에는 국제 테마파크 박람회 ‘2017 IAAPA Attractions Expo’에 참가해 중국, 두바이, 벨기에 등을 대상



‘로봇트 태권V’ VR 게임에서 이용자가 고글과 헤드폰을 쓰고 촉감조제와 팔토시를 착용한 뒤 컨트롤러를 통해 가상현실 속 태권V를 조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월드

으로 VR 콘텐츠 개발지원 및 VR 라이선스 배급 등 해외 세일즈를 진행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앞으로 파크 내 모든 VR 콘텐츠의 국산화를 통해 테마파크 운영사에서 콘텐츠 판매자로 사업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방통위 과징금 철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총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또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는 100만~300만원, 삼성전자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또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16만 6000~33만원의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근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4일

코스피지수	2538.00	▲	+1.40
코스닥지수	894.77	▲	+0.34
日 닛케이 지수	2만3940.78	▼	-188.37
中 상하이 종합	3559.47	▲	+12.9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97	▲	+0.005
환율 (원·달러)	1070.2		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6186.66	▼	-46.93

오늘의 얼굴

황각규 부회장, 첫 공식 해외출장 中 선택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사진)이 23~24일 부회장 승진 후 첫 공식 해외출장으로 중국 선양을 찾았다.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것은 중국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롯데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1994년 중국에 첫 진출해 식품, 유통, 화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의 각종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양에 건설하던 초대형 복합단지 프로젝트 ‘롯데월드 선양’은 1년 넘게 공사가 멈춰있다. 공사가 한창일 때는 하루 투입 현지 인원이 최대 3000명에 달했을 만큼 큰 프로젝트다. 황 부회장은 23일 ‘롯데월드 선양’ 건설 현장을 돌아본 데 이어 24일 인근 화학공장 등 주요 사업장을 둘러봤다. 황 부회장은 현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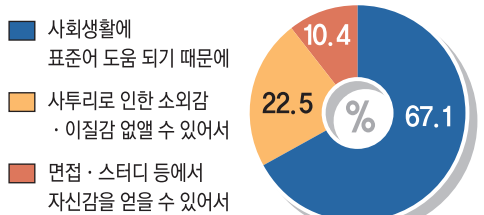
●“그게 현대차에 좋은 것”(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협력 체결식에서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이 “장관님 덕에 협력업체들이 살판난 것 같다”고 하자)

●“평창올림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은성수 수출입은행장,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창올림픽 북한예술단과 공연단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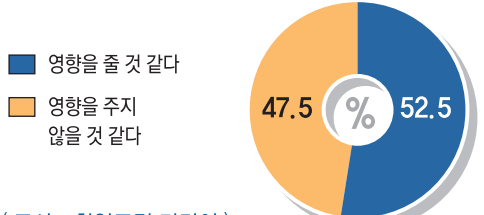
데이터 경제

구직자 60% “취업하려면 사투리도 교정”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하려면 사투리도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8.6%가 ‘취업 준비 과정에 사투리 교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투리 교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표준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67.1%)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투리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이질감을 없앨 수 있어서’(22.5%), ‘연접/스터디 등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10.4%) 순이었다.	

● 취업에 사투리 교정 필요한 이유



● 본인이 인사담당자면 사투리가 채용 여부에 미칠 영향



(조사 : 취업포털 커리어)

‘스마트 강국’ 위업, 평창동계올림픽서 확인

각종 정보와 길 안내, 동계올림픽 앱 출시

평창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KT가 24일 올림픽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2018 평창 공식 앱-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협업체 제작했다. 개막 전에는 경기 일정과 티켓상황, 경기장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올림픽 기간 중에는 매일 경기 결과와 기록, 선수 정보, 메달 순위, 올림픽 관련 뉴스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광, 숙박, 교통 정보도 알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관심 국가나 경기, 선수를 설정하면 관련 최신 뉴스와 경기 일정 등의 푸시 알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별로 응원 댓글도 달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이용 가능하다. 갤럭시엡스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KT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함께 ‘고(Go) 평창’을 선보였다. 메인 화면에 뜨는 경기장을 터치하면 빠르게 경로 검색이 가능하다. 입장권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목적지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동거리, 교통 수단, 예상시간, 소요금액 등을 알려주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KTX를 예약할 수 있는 앱과 연동돼 검색 경로에 따라 모바일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올림픽 셔틀 버스 정보도 확인할 가능하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서비스된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경제현장.jpg

“한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들 헬로비너스의 나라(오른쪽)가 설을 앞두고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가 펼친 ‘2018 나눔·감사·격려 한돈 설 선물세트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돈뽀 가득 한돈 선물세트’에 마음을 담아 미소를 짓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들’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사진제공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